

The logo for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IIT) consists of the letters 'IIT' in a bold, orange, sans-serif fo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 체코경제의 특성과 수출방안

2008년 5월

무역전략실 김영우 연구위원

(02-6000-517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요 약》

- 체코경제는 1970년대까지 동독과 더불어 계획경제국가로서는 가장 선진공업국 위치에 있었으나 1980년대부터 글로벌 경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제침체가 심화
  - 계획경제에 따른 산업구조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 체코경제는 1990년대 초부터 체제전환을 실시하여 1990년대 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서 오늘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짐
  - 체코의 경제체제전환은 과감한 투자유치,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 등에 기인하며 그 결과 산업구조의 선진화로 나타남
- 2000년 이후 연 평균 6.5%의 성장을 나타내던 체코경제는 성장이 약간 둔화되고 있으나 금년에도 4.6~5.0%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체코경제는 대외적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하, 쉐겐 조약에 따른 국경개방, 친 기업적인 노동법 개정 및 그린카드제도의 도입 등으로 경제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 교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수입은 20%정도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수출시장으로서의 매력은 더욱 커질 것임.
- 한-체코의 교역규모는 2007년 현재 수출 9.7억 달러, 수입 3.2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경제성장으로 수입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수출은 전년대비 71.3%가 증가했으나 아직도 49위에 그치고 있으며, 동구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헝가리, 폴란드, 슬로박 보다도 수출액이 작은 실정임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컴퓨터, 기계류, 평판 LCD, 무선통신기기, 운반하역기기, 반도체 등임.
- 2007년 현재 체코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2006년과 2007년 70% 이상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인 컴퓨터임.
- 2006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자동차는 2007년 1.9%의 성장에 그쳐 2위로 처졌으나 2008년 4월 현재 다시 1위로 복귀함
- 자동차와는 대조적으로 자동차부품은 2006년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체코수입시장의 특성으로는 기타기계류, 운반하역기계 등 다른 유럽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품목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임
- 상위 10대 품목 이외에도 금속공작기계, 가타산업기계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임

《체코시장에 대한 품목별 수출현황》

(기준: MTI 3단위, 단위:백만 달러, %)

순 위	품 목	2004		2005		2006		2007		2008.4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자동차	103.5	41.0	118.4	14.5	119.4	62.4	196.0	1.9	50.9	-16.6
2	컴퓨터	62.4	408.8	62.2	-0.3	108.2	74.0	211.7	95.7	47.9	-31.8
3	금형	0.0	-89.0	1.2	2,964	37.3	2,894	23.9	-35.8	29.5	275.8
4	기타기계류	0.5	4.7	1.0	115.9	35.5	3,407	73.2	106.3	27.6	579.8
5	무선통신기기	46.2	157.7	65.9	42.7	38.3	-42.0	65.5	71.3	23.8	37.5
6	반도체	3.4	156.7	15.3	348.9	25.7	68.0	42.6	66.0	22.4	47.9
7	평판 DPS	0.3	-19.2	1.2	257.3	5.7	378.5	67.1	1,087	22.1	-35.5
8	자동차부품	1.0	-45.6	0.9	-15.1	9.4	965.6	54.5	476.8	18.2	11.9
9	금속공작기계	1.0	784.2	0.2	-76.5	24.4	9990	12.6	-48.4	15.0	4,283
10	계측제어분석기	0.8	44.8	1.0	25.7	4.9	388.6	11.9	141.1	8.1	96.3
11	합성수지	6.5	-30.6	7.4	13.7	7.9	7.2	10.8	35.9	5.8	53.1
12	운반하역기계	0.0	320.3	0.0	-60.9	1.1	2,325	61.0	5,530	5.3	2,250
13	철강판	0.0	-	0.4	-	0.5	3.2	2.7	495.1	4.6	96607
18	기타산업기계	4.3	201.0	5.0	15.9	4.2	-15.1	11.1	162.1	2.5	0.3

자료: Kita.net

□ 2003년부터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①역동적인 시장변화 동향에 충실
- ②경제적·문화적으로 밀접한 독일과의 연계
- ③체코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적극 활용
- ④유망상품의 발굴
- ⑤인적교류 확대

□ 체코의 수입시장은 변화가 많아 어떤 나라보다도 동향과악이 수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체코는 기계산업의 오랜 전통으로 이 분야에 대한 기계류 수입이 다른 3개국과는 달리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것도 주목됨

—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에 속하지 않지만 체코시장에서 수출이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금속제공구의 수출비중은 2006년 6.7%를 차지

— 반면 10대 수출품목 중 플라스틱, 고무제품, 유기화학품 등은 수출 감소가 뚜렷하며 향후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고전이 예상됨

□ EU가 확대되면서 독일의 남부지역은 V4(체코, 슬로박, 헝가리, 폴란드를 지칭)와 역사적으로 애증의 관계에 있어 동유럽진출을 위한 관문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체코는 역사적으로 독일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으나 체제전환후 교역과 투자에서 각각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를 가진 독일과의 교류가 심화되고 있음.

— 체코와 교역의 역사가 짧은 우리는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는 체코시

장의 동향과약과 현지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시장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한편 체코의 전시컨벤션산업은 독일에 비하여 규모나 지명도에서 떨어지지만 전시회를 활용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제품소개와 시장접근을 위해 전시회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 체코의 제2의 도시에 있는 브르노 전시장(BVV)은 2007년 현재 연간 47회 이상의 국제전시회를 개최하여 동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체코진출을 위한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가 늘어나고 있음.

- 2007년말 현재 60개국으로부터 12,300업체가 참여
- 참가기업의 2/3가 중소기업이며 1/3은 신생기업이어서 역동성을 지니고 있음
- 참관자는 80개국으로부터 110만에 이룸
- 연간 5,000명이상의 언론인이 방문하여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

□ BVV는 기계관련 전시회가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중 MSV, IMT 등이 유명함

－ 우리나라는 체코의 전시장에 참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도 전무할 실정임.

－ 체코의 전시장은 서유럽과 동유럽의 교차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시장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적극적인 시장정보를 구하는 방안이 될 것임.

□ 성공적인 체제전환에 성공한 체코공화국(Czech Republic)은 경제수준과 국가규모에 비추어 볼 때 광업, 금속, 기계, 교통장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식료품, 가구, 인쇄, 에너지 등 소비재산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구조를 가짐

－ 이를 감안하면 현재 체코시장에 대한 유망수출품목으로는 냉장·냉동고(841810), 운반하역기기(843139), 고속도강의 부품(722810), 기

타재료의 안경렌즈(900150)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체코는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치료용 온천수(Spa)가 널리 분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품의 수출을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음.

- 체코는 전국 곳곳에 수십 군데의 온천시설(Spa resort)이 발달해 있으며 오늘날 의료관광이 확산되면서 온천치료에 맞는 욕조, 사우나 시설 등 온천기반시설과 의료용 기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시장조사를 통해 수출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 체코는 시장의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중심지에 위치하여 선진국의 고급제품과 동남아 등으로부터 수입된 저가상품이 혼재하고 있어 품질과 가격이 매우 다양한 편임.

- 특히 개방화가 이루어지면서 독일 등 선진국의 제품과 2003년부터 급증한 저가의 중국제품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가격 대비 품질을 중시하는 성향을 띠

- 또한 2004년 EU에 가입하면서 서유럽의 패턴을 닮아 년 2회의 세 일을 중심으로 구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입시기도 계절적 요인이 중요하게 됨.

- 체코인들의 소비행태는 엄격한 계획경제하에서 살던 습관으로 인해 충동구매 보다는 계획적인 소비지출을 견지하고 있음

□ 동아시아의 투자와 교역활성화를 위해 체코투자청의 아시아 본부를 서울에 설치한 점을 감안하면 한-체코의 경제관계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목 차)

<b>I. 체코경제의 특성</b> .....	<b>1</b>
가. 체제전환경제 .....	1
나. 과감한 투자유치 .....	3
다.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 .....	4
라. 경제구조의 변화 .....	6
<b>II. 최근 경제동향</b> .....	<b>8</b>
가. 주요지표 .....	8
나. 유로화 도입 연기 .....	10
다. 주요세제개혁 .....	11
라. 기타 .....	12
<b>III. 한-체코 경제관계</b> .....	<b>13</b>
가. 교역관계 .....	13
나. 투자관계 .....	20
<b>IV. 수출확대방안</b> .....	<b>25</b>
가. 수입시장의 특성과약 .....	25
나. 독일시장과 연계 .....	27
다. 전시회의 활용 .....	29
라. 유망상품 발굴 .....	31
<b>IV. 맺음말</b> .....	<b>34</b>

## I. 체코경제의 특성

### 가. 체제전환경제

- 체코경제는 1970년대까지 동독과 더불어 계획경제국가로서는 가장 선진공업국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침체가 심화
  - 체코경제는 1980년대부터 계획경제의 실패로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중앙계획경제와 CMEA내의 분업구조에 따른 산업구조의 왜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 실질경제성장률은 과대평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물가상승률 추정치를 감안하면 70년대 실질 성장률은 공식성장률의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8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거나 제로성장에 그친 것으로 평가됨.
  - 역내경제공동체인 COMECON(경제상호원조회의)<sup>1)</sup>이 1990년 해체되면서 체코경제의 붕괴는 가속화
-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경쟁의 부재로 인해 본질적으로 혁신기능이 결여되어 왔으며, 관료주의적 경직성 및 폐쇄적인 대외경제관계로 인해 1980년대 이후 어려움이 가중
  - 사회주의 국가들이 초기 공업화시기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주로 국민경제 내의 유희자원을 중앙계획과 통제를 통해 신속히 동원함으로써 달성되었으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예외 없이 투자의 한계효율 및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하락하기 시작
  - 이로 인해 1970년대부터 구동구권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어 1980년대 하반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마이너스

1) COMECON은 미국의 마셜 플랜에 대하여 1949년1월 결성 된 공산권의 경제협력기구로서 가맹국은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동독, 몽고, 쿠바, 베트남 등 10개국이었음. 이것은 자웅에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동구경제상호원조회의)로 발전하게 됨.

성장률이 나타날 정도로 악화<sup>2)</sup>

- 벨벳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1989년까지 계획경제에 의한 자원배분으로 인해 체코경제는 국제경쟁력 약화와 함께 생산성 및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sup>3)</sup>

—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누적된 과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이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

-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이후, 동유럽의 연쇄적인 정치적 변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동구권 국가들은 각국의 정치·경제·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모델설정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폐기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경제개혁의 목표로 설정

— 특히 체코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한 목표는 △경제자유화 △민영화 △안정화 △시장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의 구축이었음

### ① 자유화

-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계획과 통제를 폐지
- 교역재와 비교역재를 포함한 모든 재화의 가격자유화
- 코루나화의 태환성 도입과 단일한 환율의 확립

### ② 안정화

- 체제전환기의 거시 경제적 불균형의 해소
- 환율, 가격, 임금정책 등 거시경제 전반에 긴축정책실시

### ③ 민영화

2) 1960년대부터 구동구권 각국에서 여러 차례 경제개혁이 추진된 바 있으나, 계획경제체제라는 틀을 유지한 채 경제주체들의 생산의욕을 증대하려는 경제개혁으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하락세를 막을 수 없었음.

3) 양차 세계대전 사이 체코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Austro-Hungarian monarchy)의 산업의 중심지였으며, 1930년대 후반에는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세계 15위에 이르렀고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수준은 서유럽의 주요국가와 비슷할 정도로 산업화되었던 나라였으며 2차 대전 직전의 산업통계에 따르면 체코는 가장 산업화된 10개국 중의 한 국가였음.

- 생산수단의 국유제도를 폐지하고 사유제도 도입
- 국영기업의 구조조정도 동시에 진행
- 반환·경매·협동조합화·무상이전·바우처 발행 등 다양한 방식 도입

④ 시장인프라의 구축

-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규칙·제도·조직을 설정
- 대외적으로 시장개방도 전면적으로 진행<sup>4)</sup>

⑤ 사회안전망의 구축

- 개혁추진과정에서 실직자에 대한 생활지원
- 생산·소비·투자과정에서 애로요인 타개를 위한 경제 안전망의 설치

《체제전환전후의 체코슬로박의 경제지표》

주요지표(경상가격기준)		연평균성장률(%)	
		1970-80	1980-90
명목	GDP	4.77	1.50
	개인소비	3.22	1.69
	총투자	5.77	0.89
	물가상승률	1.14	2.17
	평균명목임금	3.13	2.08
	평균실질임금	1.99	-0.09
실질	GDP	2.7	-0.7
	개입소비	1.5	0.4
	총투자	2.1	-5.1
	물가상승률	2.8	3.5
	평균실질임금	0.3	-1.4

주: 실질지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지표임.

자료: Ivan Suján and Milota Sujánová, The Macroeconomic Situation in the Czech Republic, p.17

□ 체코경제는 1990년대초부터 체제전환을 실시하여 1990년대말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오늘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

나. 과감한 투자유치

4) 1991년 평균 관세율은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제3국에 대한 관세율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993년 슬로박과 분리후 체코는 과감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sup>5)</sup>
  - 분리이전 체코경제는 낮은 임금으로 투자유치가 쉬운 편이었으나 분리후 급격한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우려로 투자가 급감<sup>6)</sup>
  - 체코의 총고정자본은 1994년 기준으로 GDP의 30%에 달하였으나 경제재건과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요
- 체코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투자유인을 제공
  - 그 결과 체코로의 자본유입은 1993년 5.5억 달러에서 1995년 25.2억 달러로 급증하여 CMEA 국가중 가장 높은 성과를 이루었음.
  - 이는 체코의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과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등 해외투자 유치에 유리한 조건에 기인

《체제전환이후 체코의 외국인투자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2	1993	1995	1998
외국인투자	983	552	2,526	2,485

자료) EBRD

다. 안정적 거시정책운용

- 체코경제의 발전에는 안정적인 거시정책의 운용도 큰 몫을 차지함
  - 급속한 경제개혁 초기 거시경제안정을 위해 실시한 저임금정책과 평가절하는 체제전환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5) 슬로박 분리에 따른 영향으로는 ① 신규화폐 발행, 행정부의 분리, 국유재산 분할 등에 따른 부담, ② 양국가간 거래가 내부거래에서 국가간 교역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담, ③ 양국가간의 자원이전(transfer of resources)의 중단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들 수 있음.

6) 바우처 방식의 민영화와 소유권 회복조치 등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증가도 소비촉진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충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는 미흡한 편이었음.

- 특히 독립성이 강한 중앙은행(Czech National Bank)은 1991년 이래 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
  - 체제전환 초기 5년 동안 체코화폐(코루나)에 대한 명목환율은 급속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하지 않음.<sup>7)</sup>
  -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안정, 경화(hard currency) 보유증가는 경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새로운 기업에 경쟁력(breathing room)을 제공
  - 1994년 이래 무역적자 시현<sup>8)</sup>으로 환율인상 압력이 있었으나, 낮은 실업률,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등으로 수출촉진을 위한 환율인상의 압력이 크지 않아 1996년 2월 명목환율에 7.5%의 변동폭을 도입하여 점진적인 절상으로 안정적인 운용에 성공
- 물가상승률은 가격자유화로 1991년 56.6%로 최고를 기록한 후 1994년부터 연 9%전후로 안정화
  - 1991년의 물가상승은 주택시장 등 새로 형성된 시장의 가격 프로세스,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격차 등이 요인으로 작용

《체제전환기의 주요경제지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GDP성장율(%)	-1.2	-11.5	-3.3	0.6	2.7	5.9	3.9
물가상승율(%)	9.6	56.6	11.1	20.8	10.0	9.1	8.8
재정수지(GDP대비, %)	-0.2	-1.9	-3.1	0.5	-1.1	-1.8	-1.1

자료: Czech Republic: Facing Reality (CERGE, 1998), Transition Report (EBRD, 1999)

7) 체코 통화는 태환이 가능하며 대외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국제송금이 자유로운 강점을 가진. 또한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안정화 정책을 실시로 평가절하의 함정(devaluation trap)의 회피가 가능했으며 실질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둠

8) 94년 이래 무역적자 폭이 증가한 이유로는 91~94년간 수출은 연11% 증가한 반면 수입은 연 14% 증가한 데서 유래. 주요요인으로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내소비 수요 증가, 수입의 소득탄력성 증가, 코루나(Koruna)화의 평가절상 등에 있음

- 그러나 체제전환의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작아짐에 따라 물가는 안정됨
- 통화를 중심으로 한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용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게 되어 1995년 동유럽에서 최초로 OECD회원국이 됨
- 체코는 OECD 가입후 EU가입을 위해 상법, 회계법 등 주요 경제관련 법·제도를 국제표준에 맞추어 정비
- 체제전환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러시아와 동구 국가들을 대신해 독일 등 서유럽국가가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등장
- 체제전환 이전에는 구소련 등 계획경제 국가들과의 교역이 약 3분의 2를 차지했으나 1995년부터는 독일이 전체 수출의 35%, 수입의 26%를 차지

#### 라. 경제구조의 변화

- 경제체제 전환 이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진행되었으며 중소기업도 대폭 늘어남
- 체코와 슬로박의 89~95년간의 경제 분야별 고용비율을 보면 농업과 제조업(산업/건설)에서 급속히 감소하고 서비스분야에서 급증

#### 《경제분야별 고용비율》

(단위: %)

	체코		슬로박	
	1989	1995	1989	1995
농업	11.1	5.3	15.0	9.1
산업/건설	47.4	41.9	44.0	38.8
서비스업	41.5	52.8	41.0	52.1

자료: SR, 1994, Bulletin CSU, 1994, No.12 and Eurostat Labor Force Survey 1989 and 1995

- 서비스분야의 성장은 주로 소규모 서비스업의 확장에 기인하며 선진경제로의 catch-up 과정의 일환으로 풀이될 수 있음.
- 체제전환 이전 생활수준은 계획경제 체제하의 통제에 의하여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지 못했으나 자유화 조치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급속한 확장이 이루어짐.
- 노동시장의 높은 이동(mobility)에도 불구하고<sup>9)</sup> 실업률이 3%정도의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기 때문임.
- 중소기업의 급속한 확대와 초소형기업의 증가가 특징적임.
  - 1990년 31만개의 기업이 활동했으나 94년에는 84만개로 급증
  - 1989년을 기준으로 하면 노동자의 94%가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였으나 이 비율은 93년 59%, 95년 50%로 급감

《체코의 개별기업수의 변화》

1990년 말	1991년 말	1994년 말
310,653	902,797	846,285

자료: SR, 1991 and 1992, and Bulletin CSU, 1994, No.12

- 이러한 변화는 체코 체제전환 과정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9) 1995년도 통계에 의하면 5년 연속 같은 직업에 종사한 인구는 전체노동자의 43%에 불과한 정도로 노동시장의 이동이 많았음

## II. 최근 경제동향

### 가. 주요경제지표

- 2008년에는 고유가 및 EU 지역의 성장세 둔화 전망과 부가세 인상으로 소비지출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2007년보다 낮아진 4.6~5.0% 정도에 그칠 전망

《2008년 경제성장률 전망》

전망기관	예상성장률(%)
체코재무부	5.0
IMF	4.6
OECD	4.6
EU	5.0
EIU	4.6

자료: 상기기관 종합

- 2007년 4/4분기 들어 물가불안이 나타나면서 금년에는 더욱 가파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0년대 들어 지속되어온 물가안정 기조가 무너질 전망<sup>10)</sup>
  - 체코의 CSOB 은행은 2008년부터 정부의 재정개혁에 따라 농산물 등의 부가세가 인상될 예정일 뿐 아니라 공공요금의 인상도 예정돼 있어 인플레이션율이 6%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실업률은 경기호조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거 진출로 인한 고용증가로 2004년에 8.3%에 달했으나 2007년 3/4분기에는 지난 10

10) 체코경제의 전실한 성장의 배경에는 1989년 민주혁명과 1993년 슬로박과 분리·독립을 거친 다음 낮은 실업률, 안정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순조로운 성장을 이루는 데서 기인. 일부에서는 이 당시 체코경제에 대해 기적이라고 칭하기도 했음. 그러나 법제도의 미정비 등으로 생산성 향상이 따르지 않는 임금인상, 잘못된 투자, 부정 축재 등이 성행하면서 1995년부터 1997년에 걸쳐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 기업의 민영화도 불량 채권 축적, 정리해고의 지연 등으로 체코경제는 불황에 빠짐. 그 결과 1997년과 1998년 체코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1999년부터 직접투자의 확대로 설비투자 전체가 회복해 1999년 이후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으며 2005년부터 유럽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체코경제는 6.0%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이것은 기본적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와 설비투자에 의한 내수가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2004년 이후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도 경기의 견인요인이 되고 있음. 금년에는 재정적자라고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유로 도입을 위해서는 연금·의료 개혁 등이 필요함.

년간 최저인 5.2%까지 떨어지는 등 실업률이 하락

- 2007년 10월 기업들이 노동사무소에 등록한 구인요청이 1991년 이후 최대인 14만 명에 달하고 대학졸업자의 실업률이 3/4분기에 2.1%에 그칠 정도로 기업들이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2008년 실업률은 5.0% 이하로 낮아질 전망
-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올 3/4분기까지 월평균 임금 인상률이 2006년의 6.5%보다 크게 높은 7.6%를 기록하는 등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고유가와 부가세 인상 등 영향으로 물가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인력난과 함께 임금인상 압력은 지속될 전망

《체코의 주요경제지표 및 예측》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억 CZK)	변화율 (2000년가격기준)				
수출	1967.6	12.0	16.6	12.6	10.9	11.4
수입	1967.4	5.1	15.8	13.2	10.6	10.8
무역수지	0.2	4.8	1.1	-0.1	0.7	1.
경상 GDP	2817.0	6.5	6.4	6.1	4.6	4.9
GDP 디플레이터	-	-0.2	1.1	3.5	3.8	2.7
소비자 물가 상승율	-	1.9	2.6	2.7	4.6	3.1
실업율	-	8.0	7.2	5.4	5.0	4.7
재정수지 (GDP대비, %)	-	-3.5	-2.9	-3.7	-3.1	-2.5
경상수지(GDP대비, %)	-	-1.6	-3.1	-2.9	-1.5	-0.6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82, 2007)

- 한편 환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8코루나 선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의 영향으로 8월 중순부터 상승세로 전환돼 10월 26일에는 1유로 당 27코루나 선이 무너지는 등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12월 들어서는 16코루나로 하락
  - 외국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확대되는 등 체코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아 체코 코루나는 2008년에도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 체코의 수출입은 EU 경제의 둔화와 코루나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거 진출에 따른 생산기반의 확충과 제품의 경

쟁력 강화로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나. 유로화의 도입 연기

□ 시민민주당(ODS) 정부는 2010년을 목표로 추진해 온 유로화 도입 시한을 2012년으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경제수렴 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을 변경

－ 체코는 2006년 현재 유로화 채택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건을 모두 충족한 바 있으나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적자 문제해결이 유로화 조기 도입에 선결과제로 등장

- 체코의 재정적자는 2005년 GDP의 3.53%에서 2006년에는 2.95%로 하락해 유로화 도입기준인 GDP의 3% 이내 조건을 충족시켰으나, 2008년에는 다시 GDP의 4%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정부부채 규모는 2003년 7,750억 코루나에서 연평균 8.5%씩 증가하여 2006년 9,730억 코루나로 GDP의 30.4%를 기록

□ 체코 정부는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편 및 공공지출 축소를 통해 유로화 도입을 위한 여건을 마련

－ 동 개혁안은 개인 소득세를 15%로 단일화하고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현재 5%의 낮은 부가세가 적용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부가세를 9%로 인상하여 사회보장 혜택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동 개혁안의 시행을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을 2008년 3%, 2009년 2.6%, 2010년 2.3%로 축소할 계획임.

□ 2007년 9월 여론조사기관인 Median agency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38%가 체코의 유로화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찬성은 29%에 불과<sup>11)</sup>)

- 체코가 유로존에 가입할 경우 현지 진출기업은 안정적인 유로로 인해 환차손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반면, 유로 도입이후 예상되는 물가와 임금상승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됨

#### 다. 주요 세제개혁

- 체코 정부의 재정개혁에 따른 조세제도 개혁으로 2008년 1월부터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는 인하하고, 부가가치세 할인세율은 인상
  - 2008년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19%로 인하
- 개인소득세는 현재 과세표준별로 12%, 19%, 25%, 32%의 누진세율에서 2008년 15%, 2009년 이후 12.5%의 단일세율로 변경
  - 대신 과세표준은 지금까지 공제대상이었던 사회보장세 본인부담분 뿐 아니라 급여의 35%에 달하는 고용주 부담분 등도 개인소득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Supergross Wage” 적용
  - 과세표준의 확대로 실효세율은 2008년 23.1%, 2009년 이후는 19.4%로 변경
- 일반 부가가치세 19%는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5%의 할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재화 및 용역(식료품, 의약·위생용품, 문화, 호텔, 공공서비스 등 해당)의 부가가치세를 9%로 인상
- 또한 농지에 대한 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대신, 전기·가스 및 고체연료에 대한 에너지세 신설, 담배 소비세 인상 등으로 세수를 확보
- 사회보장세(의료보험 포함)의 한도를 신설하여 월 평균 임금의 48배까지를 보험료 산출기준 소득으로 제한

11) 2004년 EU 확대 이후 지금까지 유로존에 가입한 나라는 2007년 1월부터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등 소국에 한정되고 있음. 현재 유로존의 전 단계인 ERM II에 가입한 국가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박의 3개국에 불과. 신규가입국 중 경제규모가 큰 폴란드와 헝가리의 유로존 가입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며 폴란드와 헝가리도 재정적자 문제 등으로 빠르면 2012년에야 유로화 채택이 가능할 전망이다

- 현재 3.3%인 질병보험료에 대한 고용주 부담률을 2009년 2.3%, 2010년 이후 1.4%로 인하
  - 2008년부터 최초 3일간 질병보험료 지급 폐지 및 질병보험료 지급액 축소
- 2008년부터 종업원의 채용 및 해고를 쉽게 하도록 퇴직 통보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노동법을 추가개정
- 18세 미만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

#### 라. 기타

- 2004년 신규 EU 가입 9개국이 센젠조약에 가입함 따라 2007년 12월 21일부터 국경이 개방되어 EU 회원국 국민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됨.
- 국경의 개방은 교역을 더욱 활발하게 할 전망이며, 역외인이 체코에 체류할 경우에는 EU 입국후 6개월 중 3개월만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게 돼 현재와 같이 3개월마다 인근국가에 다녀오는 방법으로 장기체류는 불가능하게 됨
- 대신 EU 역외국가의 외국인 인력고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재의 노동허가서와 장기비자를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그린카드제도를 내년에 도입 추진
- 그린카드제도가 도입되면 노동허가와 장기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5~7개월이 소요되던 것이 그린카드 신청에서 발급까지 1~2개월로 단축되고 유효기간도 현재 장기비자의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체코 파견직원의 비자취득이 간소화됨.
- 공인경제인(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를 도입하여 AEO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무역업자의 경우 통관절차 간소화

### III. 한-체코 경제관계

#### 가. 교역관계

□ 체코의 대외교역은 2007년 11월 현재 수출 832억 유로, 수입 799억 유로를 기록

– 수출은 2006년 대비 19.5%, 수입은 17.6%가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3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6년 현재 EU의 역내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으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순의 비중임.

– EU 25개국의 비중은 다른 역내국가와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음.

#### 《체코의 지역별수입현황》

(단위:백만 달러, %, 통관기준)

지역·국가	2004	2005		2006			
	금액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율	비중
EU25	49,009	54,193	10.6	71.0	65,312	20.5	70.0
EU15	40,111	44,075	9.9	57.8	52,095	18.2	55.9
독일	20,605	22,986	11.5	30.1	26,522	15.4	28.4
프랑스	3,234	3,480	7.6	4.5	4,442	27.6	4.8
이탈리아	3,627	3,653	0.7	4.8	4,367	19.5	4.7
네덜란드	1,910	3,030	58.6	4.0	3,732	23.2	4.0
오스트리아	2,731	3,046	11.6	4.0	3,477	14.1	3.7
EU신규 10개국	8,898	10,118	13.7	13.2	13,217	30.6	14.1
폴란드	3,246	3,791	16.8	4.9	5,274	39.1	5.7
슬로박	3,667	4,164	13.5	5.4	5,001	20.1	5.4
루마니아·불가리아	312	435	39.4	0.6	580	33.3	0.6
미국	2,119	1,926	-9.1	2.5	2166	12.5	2.3
러시아	2,771	4,360	57.3	5.7	5,594	28.3	6.0
중국	3,547	3,912	10.3	5.1	5,703	45.8	6.1
일본	2,307	2,423	5.0	3.2	2,829	16.8	3.0
전체	68,245	76,340	11.9	100.0	93,259	22.2	100.0

자료: 체코 통계국

- 2005년 신규가입 10개국의 비중은 13.2%였으나 2006년에는 30.6%p 증가하여 14.1%를 차지
- 역외국가의 경우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 등의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룸

《EU의 수입시장비중 추세》

(단위:%, 통관기준)

국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벨기에	7.7	7.9	8.0	8.5	8.4	8.4	8.6	8.4
불가리아	0.2	0.2	0.3	0.3	0.3	0.3	0.4	0.4
체코	1.4	1.5	1.7	1.7	1.8	2.3	2.3	2.5
덴마크	2.2	2.1	2.1	2.2	2.0	1.9	2.0	2.1
에스토니아	0.2	0.2	0.2	0.2	0.2	0.2	0.3	0.3
핀란드	1.4	1.4	1.4	1.4	1.4	1.4	1.5	1.5
프랑스	14.0	14.3	13.9	13.3	13.6	13.2	12.8	12.2
아일랜드	1.9	2.0	2.1	2.1	1.6	1.6	1.7	1.6
이탈리아	9.3	9.1	9.2	9.1	9.1	8.9	8.6	8.2
사이프러스	0.1	0.1	0.1	0.1	0.1	0.2	0.2	0.2
리투아니아	0.2	0.2	0.2	0.3	0.3	0.3	0.3	0.4
라트비아	0.1	0.1	0.2	0.2	0.2	0.2	0.2	0.3
룩셈부르크	0.6	0.6	0.6	0.6	0.6	0.6	0.6	0.6
헝가리	1.3	1.3	1.4	1.4	1.5	1.7	1.7	1.8
몰타	0.1	0.1	0.1	0.1	0.1	0.1	0.1	0.1
독일	20.2	19.7	19.6	18.9	19.4	19.0	18.8	19.2
네덜란드	7.6	7.3	7.0	7.1	7.0	6.9	6.8	6.8
폴란드	2.1	2.1	2.2	2.3	2.3	2.7	2.9	3.0
포르투갈	2.0	1.9	1.9	1.9	1.8	1.7	1.8	1.7
오스트리아	3.8	3.6	3.8	3.7	3.9	4.0	3.8	3.7
루마니아	0.5	0.5	0.7	0.7	0.8	0.9	1.0	1.1
그리스	1.4	1.4	1.3	1.0	1.3	1.3	1.2	1.2
슬로박	0.5	0.6	0.7	0.7	0.8	0.9	1.0	1.1
슬로베니아	0.5	0.5	0.5	0.5	0.5	0.6	0.6	0.6
영국	11.5	11.3	11.5	12.2	11.0	10.6	10.9	11.8
스페인	6.1	6.6	6.6	6.7	7.0	7.1	7.0	6.4
스웨덴	3.1	3.1	2.8	2.8	2.9	2.9	2.9	2.9

자료: eurostat

- EU시장에서 체코의 수입비중은 1999년 1.4%에서 2006년 2.5%로 급증
- 이와 같은 증가율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박 보다도 빠른 추세임

□ 전체적으로 볼 때 EU 회원국내의 수입시장비율은 크게 2 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4개국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박 등 4개국은 1999년 5.3%에서 2006년 8.4%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동 유럽 4개국의 시장비율은 2006년 8.4%를 기록하여 8.2%를 차지하는 이탈리아 보다 규모가 더 큰 시장으로 성장

《EU국가의 역내수입비중》

(단위:%)

국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EU27 평균	66.2	63.5	64.6	65.8	66.1	66.0	64.5	64.1
벨기에	72.3	70.8	72.0	72.9	73.6	72.8	72.1	71.8
불가리아	54.9	52.9	57.1	57.7	57.7	57.0	62.6	60.9
체코	76.5	75.2	74.6	72.5	71.4	80.3	81.4	<b>80.5</b>
덴마크	73.5	72.2	72.7	74.8	73.4	70.8	71.0	72.0
에스토니아	73.2	70.5	66.4	68.8	65.0	73.7	76.2	74.1
핀란드	69.2	66.9	69.4	69.9	68.3	67.3	65.9	63.9
프랑스	68.6	67.3	67.5	68.6	70.2	69.6	67.5	68.9
아일랜드	62.8	63.3	66.9	67.0	62.8	65.8	66.7	68.3
이탈리아	65.7	61.0	61.9	62.8	63.3	62.2	59.4	56.9
사이프러스	58.8	58.6	58.9	57.5	60.3	69.3	69.2	68.6
리투아니아	60.3	54.8	54.7	56.8	56.1	63.5	59.5	62.6
라트비아	75.8	74.3	76.0	77.5	75.5	75.7	75.3	76.5
룩셈부르크	82.4	83.9	81.4	83.3	77.5	76.0	72.8	70.3
헝가리	71.7	66.1	65.9	65.0	64.5	68.5	69.9	69.7
몰타	66.1	60.6	64.7	68.2	68.2	73.0	75.1	67.8
독일	66.0	63.2	64.6	65.7	66.1	65.6	64.5	63.8
네덜란드	57.3	53.3	53.9	55.2	54.9	53.2	49.4	<b>49.7</b>
폴란드	72.2	69.0	69.7	69.7	69.6	75.3	75.3	72.7
포르투갈	78.9	76.4	76.7	79.9	79.5	77.1	76.6	75.7
오스트리아	82.2	80.2	80.5	80.8	81.8	82.7	80.5	80.2
루마니아	69.0	65.3	67.1	68.2	68.2	65.9	63.0	63.4
그리스	70.0	64.9	63.2	55.7	58.2	60.2	58.0	57.4
슬로박	74.5	70.2	72.0	73.0	74.5	78.8	78.3	75.7
슬로베니아	77.4	76.9	77.3	77.5	76.5	82.1	79.4	77.8
영국	54.8	51.8	53.6	57.3	56.7	56.0	56.3	58.3
스페인	69.9	67.7	68.7	69.1	69.3	67.9	64.2	61.0
스웨덴	71.3	68.4	70.0	71.1	71.9	72.2	70.5	69.7

자료:eurostat

- EU국가간의 수입을 보면 2006년 현재 체코는 EU역내수입의 평균인 64.1%에 비해 80.5%로 차지하여 역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 네덜란드는 49.7%에 불과하여 EU내에서는 유일하게 역내 보다는 역외수입비중이 큰 나라임
- 2004년부터 신규 10개국 EU에 가입하면서 체코의 역내수입비중은 2005년 81.4%까지 상승했으나 2006년 80.5%로 소폭 감소
- 그러나 비슷한 여건에 놓여 있는 인근 동유럽의 슬로박 75.7%, 폴란드 72.7%, 헝가리 69.7%에 비율과 비교할 때 체코의 수입비중은 훨씬 높음.
- 동유럽 국가들도 2004년부터 역내수입비중이 늘어났으나 체코보다는 적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음.
- 체코의 수입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6년 현재 기계류·수송용기기가 전체수입의 4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료 특제품·잡제품·화학제품 등이 뒤를 잇고 있음.

《체코의 품목별수입현황》

(단위:백만 달러, %, CIF 기준)

품목	2004	2005		2006			
	금액	금액	증감	비율	금액	증감	비율
기계류·수송용기기	28,888	30,720	6.3	40.2	38,429	25.1	41.2
원료 특제품	14,047	15,630	11.2	20.5	18,970	21.4	20.3
잡제품	7,443	8,348	12.1	10.9	9,942	19.1	10.7
화학제품	7,583	8,413	10.9	11.0	9,712	15.4	10.4
광물성연료	4,781	6,978	45.9	9.2	8,930	28.0	9.6
식료품·산 동물	2,826	3,406	20.5	4.5	3,925	15.2	4.2
비식료품 원재료	2,063	2,150	4.2	2.8	2,557	18.9	2.7
음료·담배	418	490	17.2	0.6	574	17.1	0.6
동식물성 유지	162	151	-6.8	0.2	173	14.6	0.2
특중 취급품	33	52	57.6	0.1	46	-11.5	0.0
합계	68,244	76,338	11.9	100.0	93,258	22.2	100.0

자료) 체코 통계국

- 증감률로 보면 기계류·수송용기기가 25.1%로 광물성 연료에 이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평균인 22.2%를 초과하고 있음.
- 전체 수입증가율은 2005년 11.9%에서 2006년 22.2%로 증가하여 수입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
- 체코의 수입시장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시장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외에는 네덜란드, 슬로박, 폴란드, 이탈리아, 러시아, 헝가리 등의 순서이며 인근국가로부터 수입 비중이 높은 것이 특색임
- 역외국가로는 중국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만, 일본의 증가가 돋보임.

《체코의 국가별수입현황》

(단위:백만 달러, %, 통관기준)

순위	국가	2004	2005		2006		2007.9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독일	20,302.6	21,239.4	4.6	24,083.1	13.4	20,306.1	15.8
2	네덜란드	2,843.0	4,064.0	42.9	5,048.1	24.2	4,259.3	23.8
3	슬로박	3,119.8	3,692.8	18.4	4,599.4	24.6	4,009.6	19.3
4	폴란드	2,712.9	3,265.0	20.4	4,552.2	39.4	3,995.5	21.3
5	오스트리아	2,887.3	3,378.0	17.0	3,730.9	10.4	3,161.5	20.4
6	이탈리아	2,956.8	2,761.3	-6.6	3,274.6	18.6	2,911.7	24.3
7	중국	1,881.3	1,676.6	-10.9	2,604.2	55.3	2,911.0	67.6
8	러시아	2,183.8	3,392.0	55.3	4,223.9	24.5	2,855.1	-11.9
11	헝가리	1,167.6	1,448.9	24.1	1,946.2	34.3	1,839.4	34.8
13	일본	1,328.6	1,257.5	-5.4	1,464.0	16.4	1,208.7	12.8
22	대만	349.6	285.4	-18.4	519.1	81.9	386.4	18.4
	합계	56,248.4	61,499.8	9.3	74,233.9	20.7	62,925.4	17.9

자료: 체코통계청

- 우리나라는 2007년 11월 현재 전체 24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출 증가율이 26.6%에 달해 평균인 17.9%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 한-체코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7년말 현재 약 9.7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2002년부터 두 자리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수입은 3.7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보다 증가율이 낮아 무역수지는 5.9억 달러로 흑자폭을 넓혀가고 있음.

《대 체코의 수출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	175.2	105.8	91.8	65.7	72.9	108.8	157.6	312.9	338.8	564.0	966.1
증감	-6.6	-39.6	-13.3	-28.4	11.0	49.4	44.8	98.5	8.3	66.5	71.3
수입	55.7	29.5	61.6	126.9	98.7	100.2	104.6	108.3	149.9	258.8	369.2
증감	-6.1	-47.1	108.9	106.0	-22.2	1.5	4.4	3.5	38.4	72.7	42.6
수지	119.5	76.3	30.2	-61.2	-25.8	8.6	53.0	204.6	188.9	305.2	596.9

자료: Kita.net

- 대 체코 무역수지는 2007년 현재 5.9억 달러에 이르며 수출의 61.8%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유망한 신흥시장임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컴퓨터, 자동차, 기계류, 평판 LCD, 무선통신기기, 운반하역기기, 반도체 등임.
- 체코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2006년과 2007년 70% 이상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인 컴퓨터임.
- 2006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자동차는 2007년 1.9%의 성장에 그쳐 2위로 처짐
- 자동차와는 대조적으로 자동차부품은 2006년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체코수입시장의 특성으로는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중 기타기계류, 운반하역기계 등 유럽시장에서 볼 수 없는 품목들이 들어 있음.

- 상위 10대 품목 이외에도 금속공작기계, 가타산업기계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임

《체코시장에 대한 품목별 수출현황》

(기준: MTI 3단위, 단위:백만 달러, %)

순 위	품 목	2004		2005		2006		2007		2008.4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자동차	103.5	41.0	118.4	14.5	119.4	62.4	196.0	1.9	50.9	-16.6
2	컴퓨터	62.4	408.8	62.2	-0.3	108.2	74.0	211.7	95.7	47.9	-31.8
3	금형	0.0	-89.0	1.2	2,964	37.3	2,894	23.9	-35.8	29.5	275.8
4	기타기계류	0.5	4.7	1.0	115.9	35.5	3,407	73.2	106.3	27.6	579.8
5	무선통신기기	46.2	157.7	65.9	42.7	38.3	-42.0	65.5	71.3	23.8	37.5
6	반도체	3.4	156.7	15.3	348.9	25.7	68.0	42.6	66.0	22.4	47.9
7	평판 DPS	0.3	-19.2	1.2	257.3	5.7	378.5	67.1	1,087	22.1	-35.5
8	자동차부품	1.0	-45.6	0.9	-15.1	9.4	965.6	54.5	476.8	18.2	11.9
9	금속공작기계	1.0	784.2	0.2	-76.5	24.4	9990	12.6	-48.4	15.0	4,283
10	계측제어분석기	0.8	44.8	1.0	25.7	4.9	388.6	11.9	141.1	8.1	96.3
11	합성수지	6.5	-30.6	7.4	13.7	7.9	7.2	10.8	35.9	5.8	53.1
12	운반하역기계	0.0	320.3	0.0	-60.9	1.1	2,325	61.0	5,530	5.3	2,250
13	철강관	0.0	-	0.4	-	0.5	3.2	2.7	495.1	4.6	96607
18	기타산업기계	4.3	201.0	5.0	15.9	4.2	-15.1	11.1	162.1	2.5	0.3

자료: Kita.net

- 2004-2007년 사이 우리나라의 대 체코수출품목은 해마다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체코수입시장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음.

《주요품목의 수출비중》

(분류:MTS 3단위, 단위: %)

품목	2004	2005	2006	2007
컴퓨터	19.9	18.4	19.2	21.9
자동차	33.1	34.9	21.2	20.3
기타기계류	0.2	0.3	6.3	7.6
평판 LCD	0.1	0.4	1.0	6.9
무선통신기기	14.7	19.5	6.8	6.8
운반하역기계	0.0	0.0	0.2	6.3
자동차부품	0.3	0.3	1.7	5.6
반도체	1.1	4.5	4.6	4.4
금형	0.0	0.4	6.6	2.5
영상기기	9.0	0.9	0.4	1.5
금속공장기계	0.3	0.1	4.3	1.3
계측제어분석기	0.3	0.3	0.9	1.2
기타산업기계	1.4	1.5	0.7	1.1
공기조절기	0.0	0.7	0.5	0.8
고무제품	0.5	0.8	0.7	0.6

자료:KITA.net

- 최대수출품목인 컴퓨터의 수출비중은 20%내외를 유지한 반면, 자동차는 2005년 34.9%에서 2007년 20.3%로 급감
-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목인 무선통신기기는 2005년 19.5%에서 2006년 6.8%로 급감하고 있으나 자동차부품, 반도체, 평판 LCD는 호조를 지속
- 기타기계류, 운반하역기계, 금속공장기계, 계측제어분석기 등은 체코 시장에서 비중이 미미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품목임
  - 이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것은 인프라 건설에 따른 수요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나. 투자관계

- 1997년 5월의 외환위기 이후 경제불황이 지속되자 체코는 1998년부터 해외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sup>12)</sup>

12) 1989.11 자유화 이후 국영기업의 사유화 추진과정에서 주요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매각되어 지배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쿠폰을 발행하는 소극적 방식의 사유화 정책을 추진. 1997년 이후 불황의 주요요인으로는 외국자본 및 선진기술의 진입을 막아 체코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데 있다고 분석이 주류(OECD, Economy Outlook,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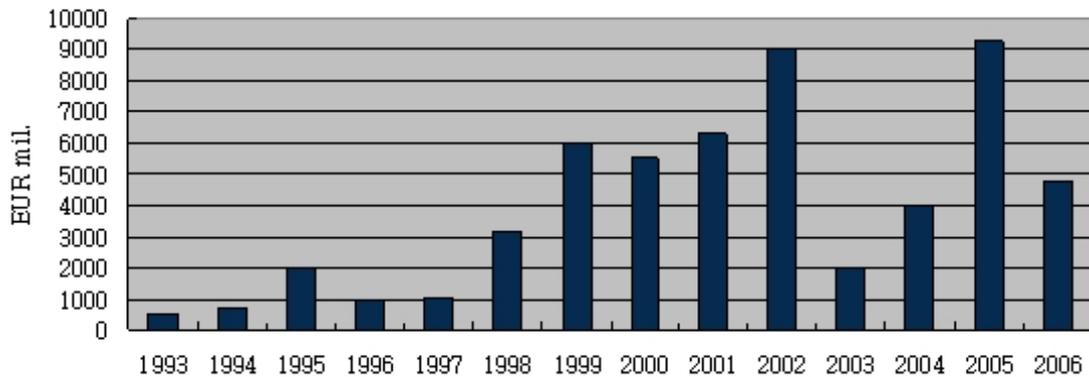
- 1998년 4월 투자법을 도입한 이래 두 차례에 걸친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센티브 수혜 분야를 확대
  - 외국인 기업에게 체코기업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 부여
  - 송금 등 자유로운 외환 유출입과 이중과세 방지
  
- 외국인투자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제조업분야와 서비스분야로 구분되어 실행되었으며 제조업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음.
  - 신규 투자기업에 10년간 법인세 면제
  - 실업률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sup>13)</sup>
  - 다만 생산시설은 환경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각종 인센티브의 총액은 투자비의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은 65%까지 인정
  - 투자 인센티브는 체코투자청(Czech Invest)에서 총괄<sup>14)</sup>
  
- 체코는 동유럽중에서는 지리적으로 서구에 가장 근접한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어 물류비용이 저렴하여 투자의 적지로 떠오름
  
- 높은 교육수준과 산업의 전통이 깊어 숙련노동자 확보가 용이한 편이나 임금은 유럽 평균임금의 약 40% 수준에 불과
  
- 2004년 OECD 체코경제보고서는 체코가 과학 및 기술분야 대학졸업생 수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유한 것으로 평가
  
- 이런 이점을 살린 체코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550억 유로의 외국자본을 유치

13)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종업원 1인당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의 35%를 지원하며, 실업률이 50% 이상인 지역에 투자할 때는 종업원 1인당 200,000 코루나를 지원.

14) 체코투자청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내외 산업무역부에 신청서를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하며, 산업무역부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14일 이내에 접수. 산업무역부는 과당경쟁방지청(Office for the Protection of Economic Competition)과 협력, 인센티브 지원규모 사정 및 “투자인센티브 지원 제안서(Offer to Grant Investment Incentives)” 준비함. 산업무역부는 “투자인센티브 지원 결정서(Decision to Grant Investment Incentives)” 발급

- 산업용부지 조성프로그램을 통해 1998~2005년 약 2,150ha에 이르는 92개의 산업단지 조성도 투자유치에 크게 일조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자료: 체코투자청

- 체코의 높은 투자등급은 개방적인 투자환경과 더불어 투자유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동유럽 주요국의 투자등급을 살펴보면 체코는 슬로베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투자등급이 높은 국가임.

《동유럽 주요국의 투자등급》

국 가	S&P	Moody's	Fitch-IBCA
슬로베니아	AA	Aa2	AA
체코	A-	A1	A
헝가리	BBB+	A2	BBB+
폴란드	BBB+	A2	A-
에스토니아	A	A1	A
슬로박	A	A1	A
루마니아	BBB-	Baa3	BBB
러시아	BBB+	Baa2	BBB+

자료 : 체코 국립은행, 2007년1월

- 이와 같이 안정적인 투자등급평가를 받은 것은 1995년 OECD가입과 2004년 EU가입이 크게 일조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적 표준(Economic Standard)도 동유럽의 주요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체코의 투자등급유지에 크게 기여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적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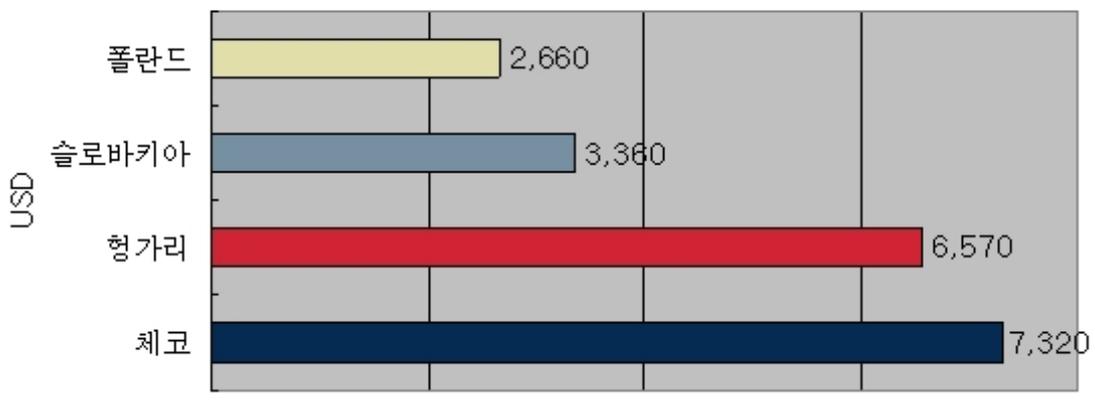
(단위:%)

	2005	2006	2007	2008
체코	74.1	76.4	80.4	83.8
에스토니아	59.5	64.6	70.6	76.2
리투아니아	51.6	55.6	60.1	63.6
라트비아	48.2	53.7	59.4	64.1
헝가리	62.2	62.9	64.7	66.3
폴란드	48.9	50.9	54.3	57.1
슬로박	57.5	60.3	65.7	69.6
EU25	100.0	100.0	100.0	100.0

자료 : Czech business & trade, 2007. 11-12월

- 체코는 우수한 투자환경과 경제적 표준으로 FDI 유치에 노력한 결과 2006년 체코의 1인당 FDI은 7,320 달러에 이르러 동유럽 4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2006년 중부 유럽의 인구당 FDI



자료: 체코투자청

- 투자유치를 국별로 보면 2006년 현재 독일(26%), 네덜란드(17%), 오스트리아(9%), 프랑스(7%), 미국(6%), 스위스(5%), 벨기에(4%), 영국(4%) 등임.
- EU역내의 비중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보면 서비스업(50.3%), 제조업(48%), 1차 산업(1.6%)로 구성

《업종별 투자유치의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업종	2004	2005			2006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제조업	1,012	925	7.9	-8.6	2,189	36.7	136.6
기계	186	122	1.0	-34.5	214	3.6	75.4
금속제품	505	71	0.6	-86.0	389	6.5	447.9
자동차	-429	397	3.4	192.5	792	13.3	99.5
서비스	3,747	10,896	93.5	290.8	3,592	60.3	-67.0
전기·수도·가스	290	429	3.7	147.9	-247	-	-
소매·수리	804	406	3.5	-49.5	1,128	18.9	177.8
수송·통신	270	5,776	49.5	2,139.5	-112	-	-
금융·보험	764	2,261	19.4	295.9	853	14.3	-62.3
부동산	1,644	2,163	18.5	131.6	1,955	32.8	-9.6
기타	215	-163	-1.4	-43.1	176		
합계	4,974	11,658	100.0	234.4	5,957	100.0	-48.9

자료: 체코 중앙은행

□ 우리나라의 대 체코 투자는 2007년 상반기 현재 11.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투자의 약 1.5%를 차지

— 현대자동차가 9.4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우하이텍, 한화-플라코르 등이 주요 투자업체임.<sup>15)</sup>

《대체코 투자동향》

(신고건수 기준, 단위: 백만 달러)

89-02		03		05		06		07상반기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	39.7	1	5.5	2	10.6	7	1,043	9	63.9	24	1,163

자료: 수출입은행

— 업종별로 살펴볼 때 건수로는 제조업이 70.8%에 불과하지만 금액기준으로는 98.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업종별 투자동향》

15) 2006년 현재 일본기업은 75개의 제조업을 비롯한 총 160개 회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3만 2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음. 2006년 현재 자동차,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중임. 토요타-푸조-시트로엥(TPCA, 13억 유로), 덴소(2억 5500만 유로), 파나소닉(1억 3900만 유로), 후타바공업(9100만 유로), 미쯔비시 전기(3200만 유로), 카야바공업(2900만 유로), 코요 정공(2870만 유로), 쇼와알루미늄공업(2800만 유로) 등임.(자료: 일본 외무성)

(신고건수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업	합계
건수	17	4	2	1	24
금액	1,147.9	9.9	4.7	0.5	1,163.0

자료: 수출입은행

- 체코상공회의소는 동아시아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 2006년 8월 서울에 ‘동아시아 본부’를 설치하고 투자유치에 전력

## IV. 수출확대방안

### 가. 수입시장의 특성파악

- 2007년 11월 현재 체코의 수입은 799억 유로에 달하며 전년 대비 17.6%의 성장을 지속할 경우 2007년말 수입은 873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체코의 수입시장의 물량지수는 2006년 현재 187.9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슬로박에 이어 두 번째로 지수가 늘어나고 있음
  - 이것은 2000년 대비 연평균 14.6%의 수입물량의 증가를 의미함.

### 《동유럽국가의 수입물량지수 변화》

(기준년도: 2000년)

국가	2001	2003	2004	2005	2006
체코	114.0	130.7	158.9	163.1	187.9
헝가리	106.7	125.0	143.1	153.6	171.3
폴란드	103.8	116.0	135.2	143.4	166.2
슬로박	116.8	143.0	163.4	179.9	218.8

주: 2006년 현재 EU 27개국의 평균수입물량지수는 151.8임.

자료: 체코 투자청

- 우리나라의 대 체코 수출규모는 2007년말 현재 약 9.7억 달러에 그쳐 체코 전체수입의 1.1%에 불과하지만 2001~07년 사이 연평균 56.5%의 폭발적인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06년과 2007년은 평균 68.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체코시장은 성공적인 체제전환으로 인해 각광받는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이 2006년 91.2%에 달함.<sup>16)</sup>
- 10대 수출품목의 집중도는 인근 동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체코가 가장 낮으며 1993년 국가를 분리했던 슬로박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체코와 슬로박이 정치적으로 분리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경제적인 특성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체코는 기계산업의 오랜 전통으로 이 분야에 대한 기계류 수입이 다른 3개국과는 달리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것도 주목됨

#### 《동유럽국가의 10대 품목 수출비중》

(단위: %, 백만 달러)

16)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목의 특성은 신흥시장의 경우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서유럽의 경우는 오랜 교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논의는 줄고 '독일경제의 특성과 수출확대방안,' 무역연구, 한국무역협회, 2007년 11월 참조

	체코	폴란드	슬로박	헝가리
전기기기(85)	11.2	42.2	39.8	43.1
기계류(84)	37.8	14.0	14.8	10.4
자동차(87)	35.5	16.1	10.3	10.9
선박(89)	0.0	0.0	0.0	0.0
광학기기(90)	2.6	21.3	24.6	29.9
5대 품목합계	<b>87.1</b>	<b>93.6</b>	<b>89.5</b>	<b>94.3</b>
플라스틱(39)	1.8	1.0	2.5	1.5
고무제품(40)	0.7	0.3	0.1	0.3
유기화학품(29)	0.4	0.0	0.0	0.0
철강제품(73)	0.5	1.0	0.9	0.2
철강(72)	0.7	0.9	0.3	0.7
10대 품목합계	<b>91.2</b>	<b>96.8</b>	<b>93.3</b>	<b>97.0</b>
전체수출	564	2,613	1,267	1,200

주: 2006년 국가별 수출통계를 토대로 필자가 계산한 것임.  
 자료:KITA.net

- 체코시장에 대한 10대 수출품목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수출집중도를 살펴보면 91.2~95.8%사이에서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음
- 그러나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반면, 전기기기, 기계류, 광학기기의 수출비중은 증가
- 체코의 수입시장은 변화가 많아 어떤 나라보다도 동향과약이 수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10대 수출품목에 속하지는 않지만 체코시장에서 수출이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금속제 공구(82)의 수출비중은 2006년 6.7%를 차지
- 반면 10대 수출품목 중 플라스틱, 고무제품, 유기화학품 등은 수출 감소가 뚜렷하며 향후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고전이 예상됨

《체코시장의 10대 품목 수출비중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품목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기기기(85)	21.2	31.6	26.8	11.2	29.0
기계류(84)	12.5	24.8	27.7	37.8	28.3
자동차(87)	47.9	33.4	35.2	35.5	24.7
선박(89)	0.0	0.0	0.0	0.0	0.0
광학기기(90)	1.9	1.0	1.5	2.6	9.2
5대 품목합계	<b>83.5</b>	<b>90.8</b>	<b>91.2</b>	<b>87.1</b>	<b>91.2</b>
플라스틱(39)	7.1	2.8	2.8	1.8	1.3
고무제품(40)	0.7	0.5	0.8	0.7	0.6
유기화학품(29)	0.7	0.5	0.5	0.4	0.0
철강제품(73)	0.2	0.2	0.2	0.5	0.8
철강(72)	0.1	0.0	0.3	0.7	1.0
10대 품목합계	<b>92.3</b>	<b>94.8</b>	<b>95.8</b>	<b>91.2</b>	<b>94.9</b>
비금속제공구(82) <sup>1)</sup>	1.2	0.7	0.8	6.7	2.7
전체수출	157	312	338	564	966

1)2008년 1월 현재 2,908% 증가하고 있어 금년에는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나. 독일과의 연계

□ 체코는 독일과 646km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북해로 흐르는 국제하천 엘베강으로 연결되어 있음.<sup>17)</sup>

— 체코는 함부르크항구내에 3만m<sup>2</sup>의 영토(enclave)를 가지고 있어 엘베강을 이용한 수운으로 물류를 이동<sup>18)</sup>

— 두 나라 사이의 일부도로나 철도구간은 서로의 국경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줌

□ 내륙국가인 체코는 지리적 특성으로 헝가리, 폴란드와 더불어 서유럽진출을 위한 공동대응을 수백 년 동안 모색해 왔음.

— 비슷한 입장에 처한 동유럽의 4개국을 Visegrad<sup>19)</sup>그룹(V4)으로 부

17) 체코는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인접해 있으며 서부의 보헤미아(Bohemia)지방과 동부의 모라비아(Moravia)지역으로 나누어 짐. 모라비아 서쪽의 일부는 실레시아(Silesia)라고 불리는 지역이며 나머지는 현재의 폴란드의 영토가 되어 있음. 체코의 수도이자 보헤미아 수도인 프라하는 블타바강(Vltava)과 라베강(Labe)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며 이 강은 엘베강으로 합류하여 북해로 흘러 감. 따라서 엘베강은 체코경제를 서유럽과 연결하는 동맥이라 할 수 있음.

18) 1차 세계대전후 열린 베르사이유조약에서 보헤미아왕국은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하면서 독일의 함부르크항구내의 일부를 조차지로 제공받았으나(조약 363조) 100년이 지난 2018년 반환예정임.

르는데 이들은 언어와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임.

- Visegrad는 1335년 헝가리, 폴란드, 보헤미아 왕들이 서유럽진출을 위한 교역로를 협의하기 위해 모인 중세도시의 이름으로 1999년 이후 체크, 헝가리, 슬로박, 폴란드가 년 1-2회의 정례회의를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V4라고도 불림.

□ EU가 확대되면서 독일의 남부지역은 V4와 역사적으로 애증의 관계에 있어 동유럽진출을 위한 관문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오늘날 1천만의 체코인구중에는 상당한 비율의 독일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민의 70%이상의 독일어를 구사<sup>20)</sup>
- 체코의 주요도로는 서쪽으로 독일과 연결된 D5(프라하-뉘른베르크), D8(프라하-테플리스)가 동맥구실을 하고 있음.

□ 또한 독일은 체코와의 교역과 투자에서 각각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임

- 체코는 역사적으로 독일과 불편한 관계가 많았으나 체제전환후 독일과의 교류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음.

□ 체코와 교역의 역사가 짧은 우리는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는 체코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시장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체제전환이후 체코의 경제정책은 서방을 중시하는 기조로 바뀌면서 인접한 경제대국 독일과의 연계성은 더욱 높아짐

19) 독일통일 이전에는 독일의 한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상인들은 관세를 내어야 했기 때문에 독일통일의 기본은 관세를 서로 면제해주는 관세동맹에서 출발하였음. 내륙에 위치하여 항구가 없던 Visegrad국가들은 서유럽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여러 지역을 통과해야 했고 이런 불편을 시정하기 위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게 관세를 낮추어 줄 것을 건의하고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교역로를 협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지게 됨.

20) 1921년 체코지역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당시 1,350만 인구 중에서 체코인이 50%, 독일인이 23%, 슬로박인이 15%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다. 전시회활용

- 체코의 전시컨벤션산업은 독일에 비하여 규모나 지명도에서 떨어지지만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전시회를 활용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제품소개와 시장접근을 위해 전시회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 체코의 전시장을 대표하는 곳으로는 제 2의 도시에 있는 브르노 전시장(BVV)이며 동 전시장은 2007년 현재 연간 47회 이상의 국제 전시회를 개최<sup>21)</sup>
- 브르노 전시장은 80년의 긴 역사와 동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표전시장으로 체코진출을 위한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가 늘어나고 있음.
- 참가기업의 80%이상이 EU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국의 기업으로 이런 점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서유럽의 유명전시장과는 대조적임
  - 2007년말 현재 60개국으로부터 12,300업체가 참여
  - 참가기업의 2/3가 중소기업이며 1/3은 신생기업이어서 역동성을 지니고 있음
  - 참관자는 80개국으로부터 110만에 이룸
  - 연간 5,000명 이상의 언론인이 방문하여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
- BVV는 기계관련 전시회가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중 MSV, IMT 등이 유명함
- 2008년 50회를 맞는 MSV는 체코의 기계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2006년 32개국에서 1,489개 업체, 10만 명의 방문객이 참가

21) 브르노전시장은 체코의 동부 모라비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연간 47회 전시회중 24개 전시회는 동유럽에서 가장 큰 전시규모를 자랑하고 있음. 특히 동 전시장은 뒤셀도르프 Messe가 70%의 지분을 가짐으로서 동유럽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알려짐.

- 우리나라는 체코의 전시장에 참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도 전무할 실정임.
- 체코의 전시장은 서유럽과 동유럽의 교차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시장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적극적인 시장정보를 구하는 방안이 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전시회에 참가하더라도 계약실적이 없는 경우 다음 행사 참여에 지원이 없어 이와 같은 방식이 지속된다면 체코전시장 참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sup>22)</sup>
  - 그 동안 터키전시장 진출을 꺼려 왔던 국내업체들은 2008년 2월 WIN 2008에 대규모로 참가하여 우리 제품이 가격과 품질경쟁력이 있어 터키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sup>23)</sup>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코시장은 기계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반면, IT분야는 아직까지 수요가 미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기계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전시회에 적극 참가가 요망됨.

#### 라. 유망상품 발굴

- 체코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의 브랜드와 품질 신뢰도가 높아 꾸준한 시장 확대가 가능
-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독일 바이에른주 국경인 자테트시에 히타치가

22) 업계나 정부에서는 전시회에 참가하더라도 규모가 가장 크고 명성이 있는 곳을 중시하여 중소기업에는 참가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이에 따라 동유럽은 전시를 통한 시장개척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개척에는 소홀한 면이 있음.

23) 2008년 2월 7일부터 10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2008 터키 이스탄불 산업박람회(World of Industry-WIN 2008)」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7개사를 출품시켜 총 167건 1천 5백만 달러의 상담실적과 6백만 달러의 현지 계약실적을 올렸음. 동 전시회에는 15개국 706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한국은 기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마련된 한국관에 7개 업체가 전시품을 출품하여 제품홍보 및 상담활동을 벌임. WIN 2008은 Deutsche Messe가 주최하며 2001년 최초 개최 이후 올해 8회째를 맞는 국제 기계류 전시회로 한국의 이번 성과는 향후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07년 하반기부터 플라즈마 TV, 액정 TV를 생산하는 등 체코에 생산설비를 위한 투자가 활발함.<sup>24)</sup>

- 주요투자국들은 종전 자동차산업에 집중되었던 투자패턴을 벗어나 TV, 가전 등 전자기기 제품을 직접 생산하기 위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어 가전분야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임.

□ 자동차의 경우는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오스트라바 지역에 10억 유로를 투자하여 연산 30만대의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을 진행중<sup>25)</sup>이어서 향후 10여개 협력업체의 동반진출이 이루어 질 경우 우리기업의 체코진출이 활발해질 것임

- 현대자동차의 현지공장설립은 자동차 생산이라는 주요목적 외에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체코시장에 대한 유망수출품목으로는 냉장·냉동고(841810), 운반하역기기(843139), 고속도강의 부품(722810), 기타재료의 안경렌즈(900150) 등을 들 수 있음.<sup>26)</sup>

- 소득이 증가하면서 냉장·냉동고의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향후 전망이 밝음

#### 《냉장·냉동고의 수출추이》

(단위:천 달러, %)

24) 히타찌에서는 2008년부터 유럽에서 평판TV의 수요가 연간 2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생산설비확장을 계획하고 있음.

25) 환경문제로 인해 지방정부와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도되고 있음.(Prague Daily Monitor, 2008. 3. 6)

26) Prague Daily Monitor, CTK, Prague Watchdog, Central EU Business Journal 등의 주요일간지와 Central Europe Review 등의 잡지 기사를 종합하면 상기 품목들의 수입시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체코대사관, KOTRA 프라하지사 등에서는 포장기자재, 다이아몬드공구, 금전등록기 등을 추천한 (2005년) 바 있으나 불과 2년 사이에 시장상황의 변화가 일어남.

	2004	2005	2006	2007
체코의 수입(a)	73,267	64,916	53,937	81,521
증감률	-	-11.4	-17.0	51.1
한국의 수출(b)	1,825	2,589	1,927	2,341
증감률	30.6	41.9	-25.6	21.5
점유율(b/a)	2.5	4.0	3.6	2.9

자료:KITA.net

- 운반하역기기는 2005-06년 사이 수출이 미미했으나 우리나라 기계류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2007년 시장점유율이 10%에 이릅니다

《운반하역기기의 수출추이》

(단위: 천 달러, %)

	2004	2005	2006	2007
체코의 수입(a)	35,513	40,635	40,032	44,570
증감률	-	14.4	-1.5	11.3
한국의 수출(b)	106	45	2	4,439
증감률	3,843.6	-57.7	-95.7	231,210.7
점유율(b/a)	0.3	0.0	0.0	10.0

자료:KITA.net

- 2004년 65%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고속도강의 부품수요가 2005년 중국산으로 대체되면서 급락했으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수출확대가 예상됩니다

《고속도강의 부품》

(단위: 천 달러, %)

	2004	2005	2006	2007
체코의 수입(a)	6,663	9,966	9,717	16,760
증감률	-	49.6	-2.5	72.5
한국의 수출(b)	4,329	1,345	1,954	4,738
증감률	151.4	-68.9	45.3	142.5
점유율(b/a)	65.0	13.5	20.1	28.3

자료:KITA.net

- 안경테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여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

《기타재료제의 안경테》

(단위: 천 달러, %)

	2004	2005	2006	2007
체코의 수입(a)	22,102	91,096	100,391	96,087
증감률	-	312.2	10.2	4.3
한국의 수출(b)	133	457	609	1,496
증감률	-47.6	244.2	33.1	145.7
점유율(b/a)	0.6	0.5	0.6	1.6

자료:KITA.net

- 또한 체코는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치료용 온천수(Spa)가 널리 분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품의 수출을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음.
- 체코는 전국 곳곳에 수십 군데의 온천시설(Spa resort)이 발달해 있으며 이미 수백 년 동안 의료관광이 성행해 왔음<sup>27)</sup>
- 오늘날 의료관광이 확산되면서 온천치료에 맞는 욕조, 사우나시설 등 온천기반시설과 의료용 기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시장조사를 통해 수출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 V. 맺음말

- 2차대전 이전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인정받던 체코의 제조업은 공산주의 체제아래에서 낙후되었으나 1989년 성공적인 경제체제전환후 급속한 변화와 성장을 진행중임<sup>28)</sup>

- 벨벳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1989년까지 계획경제에 의한 자원배분으

27)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온천들이 운동기관과 다양한 신경기관 계통의 질환환자들이 모여 Velke Losiny 유흥온천, Janske Lazne 온천, Lazne Darkov 온천이 치료효과로 명성을 얻고 있음.

28) 여타 동구권국가와 비교할 때 체코는 산업발전의 전통, 독일과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상태 유지, 유럽의 주류국가(mainstream)로서의 역사가 체제전환정책의 채택을 비교적 용이했으며 과거의 높은 생활수준과 국민들의 높은 적응력은 일시적 생활수준 저하를 감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로 인해 체코경제는 국제경쟁력 약화와 함께 생산성 및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

-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누적된 과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이 유일한 대안이었음
-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전통적인 공업국인 체코는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일반 소비재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짐
- 따라서 자유화, 민영화 등을 통한 체제전환후에도 체코의 소비재 공업은 발달해 왔으나 아직도 EU국가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미약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여 옴.
- 체코의 수입시장은 최근 소득증가에 의해 급속히 신장하고 있고 EU 의존도가 줄어드는 반면,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대 체코수출은 2007년말 현재 약 9.7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2002년부터 두 자리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수입도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보다 증가율이 낮아 무역수지는 흑자폭을 넓혀가고 있음.
- 체코는 시장의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중심지에 위치하여 선진국의 고급제품과 동남아 등으로부터 수입된 저가상품이 혼재하고 있어 품질과 가격이 매우 다양한 편임.
- 특히 개방화가 이루어지면서 독일 등 선진국의 제품과 2003년부터 급증한 저가의 중국제품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가격 대비 품질을 중시하는 성향을 띠
- 또한 2004년 EU에 가입하면서 서유럽의 패턴을 닮아 년 2회의 세

일을 중심으로 구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입시기도 계절적 요인이 중요하게 됨.

- 체코인들의 소비행태는 엄격한 계획경제하에서 살던 습관으로 인해 충동구매 보다는 계획적인 소비지출을 견지하고 있음

□ 2003년부터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①역동적인 시장변화 동향에 충실
- ②경제적·문화적으로 밀접한 독일과의 연계
- ③체코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적극 활용
- ④유망상품의 발굴
- ⑤인적교류 확대

□ 동아시아의 투자와 교역활성화를 위해 체코투자청의 아시아 본부를 서울에 설치한 점을 감안하면 한-체코의 경제관계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 투자기업의 급증과 산업생산 호조 등으로 체코의 실업률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4년 11만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금년 9월 말 기준 22만 명을 넘음.

- 체코 정부가 외국인의 체코 취업 문호를 확대하고 쉽게 하는데 정책 방향을 두어 우리진출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나 한국인 파견직원의 체류허가 취득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의 커다란 사회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해결을 위해 체코 유학을 통해 현지에서 직장을 찾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만 함.